Green Industry

그린산업 관련주 주가하락은 2016 데자뷔

Green Industry

2020. 11. 05



Green Industry 한병화
02)368-6171
bhh1026@eugenefn.com



그린산업 관련주

Recommend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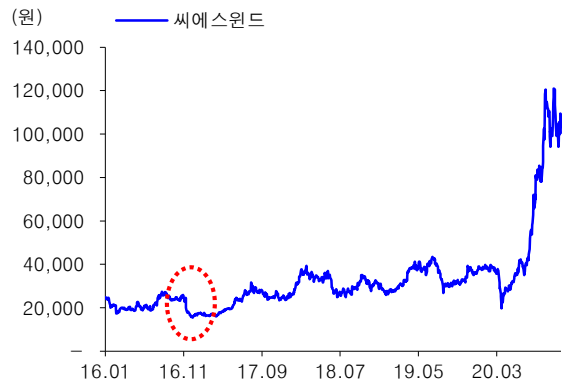
■ **미 대선, 누가 당선되던 그린산업 업황의 악화는 제한적**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미국발 그린산업의 정책지원 모멘텀은 단기간에 기대하기 힘들다. 하지만 현재의 미국 그린산업 업황에 트럼프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풍력과 미국은 기존의 보조금인 PTC(생산세액공제)와 ITC(투자세액공제)의 연장효과가 각각 2022 년, 2023 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급락은 없다. 전기차 시장은 트럼프 재선시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내년부터 완성차업체들의 신규 전기차모델 출시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2021 년부터 미국의 전기차 판매 성장률은 다시 두 자릿수 이상으로 회복이 예상된다.

■ **2016 년 트럼프 당선 후, 국내 그린관련주 단기 주가하락 후 대세상승기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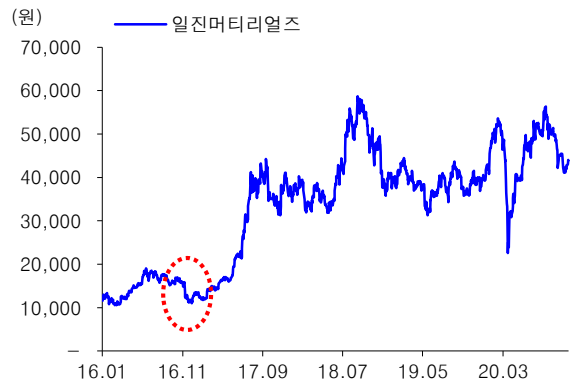
2016 년 트럼프의 예상 밖 당선으로 그린관련주들의 하락이 있었다. 종목마다 다르지만 관련주들은 11 월 한달 간은 약세였고, 이후 업종별로 반등하기 시작했다. 전기차 종목들이 가장 빠른 회복을 보였는데, 대선 약 한 달 후부터 상승국면에 진입했다. 가장 주가 하락 폭이 컸던 풍력업체인 씨에스윈드는 대선 후 한 달간 약 30%이상 하락했지만, 6 개월 후 회복했고 그 이후 기조적인 상승추세에 진입했다. 이번에도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단기적으로는 그린관련주의 하락이 예상되지만,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4 년전과 비교해 그린산업의 경쟁력은 훨씬 강해졌고, 미국을 제외한 EU, 중국, 일본 대한민국 등 대부분의 경제대국들에서 그린산업의 지원강도가 역사적으로 가장 강해졌기 때문이다.

도표 1 트럼프 당선 후 단기 급락이 대세상승의 시작점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2 트럼프 당선 후 단기급락이 대세상승의 시작점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 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 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85%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15%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0.09.30 기준)